

자신의 꿈이 확고하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승 재

- 서울 대신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학과 졸업
 - 2016년도 5급 공채 교육행정직렬 합격
-

I. 서

“다행이다.” 합격자 발표일, 최종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든 느낌은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합격이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수험생활이 고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는 이 글이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수험생활의 고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이나마 고된 수험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씁니다.

II. 수험기간 전반

5년. 행정고시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여 최종합격을 통보받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2011년 11월에 학교 고시반에 들어갔고, 2016년 11월에 발표가 났으니깐요. 행정고시는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총 4회 응시했고, 2차 시험에서 3회 불합격했습니다. 입법고시는 2012년, 2015년 총 2회 응시했고, 1차 시험에서 1회, 2차 시험에서 1회 불합격했습니다.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기 이전, 잠깐 학원에서 현장 강의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는 본격적으로 행정고시에 진입하기 이전에 잠깐 분위기를 느껴본 것에 불과했습니다. 저의 모든 고시 생활은 학교 고시반에서 이루어졌고, 고시반 내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신림과 학교 고시반 사이에서 갈등 중인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신림과 학교 고시반을 모두 겪어본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길, 굳이 신림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오랜 수험생활로 매너리즘에 빠진 경우라면 분위기를 전환해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림 생활이 고시반 생활보다 빼어나게 뛰어난 점은 딱히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입니다.

III. 수험공부방법

1. 제1차시험 공부

1차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최종합격을 했던 해에 1차 공부를 한 시간은, 아마 15시간 남짓 될 겁니다. 그러나 1차 기간에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은 모두 2차 공부에 투자하였습니다. 결국 행정고시는 2차 시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차 시험은 P/F 타입이나, 2차 시험은 3차 합격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차 실력에 큰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바, 1차 기간에도 2차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항상 합격컷을 상회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행정고시에서 언제나 1차 시험에 합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PSAT형 인간'처럼 매번 압도적인 PSAT 성적을 내지는 못 했습니다. 2012년에는 입법고시 1차 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하였고, 모강을 풀어보면 하위권 성적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였을 때 1차 공부보다는 2차 공부를 하는 것이 최종 합격률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학습 스케줄을 잡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풀어놓아도 되는지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5년 간 고시 생활을 하면서 1차의 벽을 넘지 못 한 많은 수험생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가슴 한 쪽이 아릿할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꾸밈없이 풀어 놓는 것은, 어딘가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깐 PSAT 강의를 듣고, 강사들의 문제를 풀고, 기출 문제를 암기할 정도로 반복해서 풀고...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고시 시험 전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시험에 통과해도, 2차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

다. 시험 전체를 봤을 때, 자신의 합격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篤心 있게 그 길을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제2차시험 공부

(1) 전반적인 공부방법

저는 끈기 있게 공부하는 수험생은 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합격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스스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가령 스테디를 아침, 점심, 저녁 때 각각 잡아서 스테디와 스테디 사이 시간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상 앞을 뛰쳐나가려다가도 1시간 후면 다음 스테디가 시작하는지라 놓고 돌아올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한 글자라도 보자는 마음에, 비효율적이지만 컴퓨터로 서브노트를 일일이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컴퓨터로 편집하고 제본을 한 서브노트들은 2차 시험 직전에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 과목별 공부방법

1) 경제학

경제학은 가장 자신이 없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다행스럽게 실전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은 이론을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였습니다. 막상 이론을 알아도 문제로 접하면 못 푸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조금씩이나마 매일 경제학 문제를 풀면서 문제 푸는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과목 순환 기간에도 경제학 문제는 항상 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의는 김진욱 강사님 강의와 황중휴 강사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강사님들의 특강도 거의 빠지지 않고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분 다 강의력이나 강의의 질 면에서 굉장히 빼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중 자신에게 적합한 분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김진욱 강사님의 ZIP을 바탕으로 단권화 하였습니다. ZIP에 없는 자료는 관련 페이지 사이사이에 끼 넣는 방식으로 시험 직전 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로 김진욱 강사님의 수업자료로 보충하였고, 그 외 황중휴 강사님의 트리니티나 수업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교과서는 정운찬 저 거시, 김경수 저 거시, 이준구 저 미시, 서승환 저 미시를 보았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모두 최소 1번 이상씩은 보았습니다. 연차가 쌓이면서, 교수님 교과서는 발췌독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워서 굉장히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김진욱 강사님 순환모의고사, 황종휴 강사님 순환모의고사, 윤지훈 강사님 순환모의고사, 황종휴 강사님 연습책, 김진욱 강사님 수업자료, 윤지훈 강사님 문제, 임봉욱 교수님 미시 등을 풀었습니다.

스터디는 주로 문제 풀이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다른 과목은 거의 답안 스터디만을 했었지만, 경제학은 답안 구성보다는 문제 풀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답안을 1시간씩 작성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그 시간에 문제를 더 많이 접하려고 하였습니다.

2) 행정법

행정법은 가장 자신 있던 과목이었습니다. 이른바 전략과목이었죠. 그러나 실전에서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처참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2차 시험 첫 날, 행정법을 망치고 집에 돌아와 우울함에 빠져 다음날 시험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음만 상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행정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던 때에는 가급적 이론을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많은 강의를 듣고, 많은 책을 보았습니다. 다만 연차가 쌓이면서 어느 정도 행정법에 자신이 붙은 후에는 순환 강의를 듣지 않고 사례문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가령 합격하던 해에는 강의를 듣지 않고, 여섯 분 강사님의 문제를 구하여 혼자 풀어보았습니다. 두 분 강사님의 문제는 정식으로 답안을 쓰고, 나머지 네 분 강사님의 문제는 목차를 잡는 방식으로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였습니다.

강의는 김정일 강사님, 정선균 강사님, 류준세 강사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김기홍 강사님의 각론 특강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정일 강사님 강의로 시작하여 류준세 강사님 강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강사님 강의와 류준세 강사님 사이에는 정선균 강사님, 김기홍 강사님, 박도원 강사님, 김향기 교수님 등 여러 강의 중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법은 여러 강사님 교재, 모의고사 문제, 사례집, 교수님 교과서 및 사례집 등을 모두 참고하여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김정일 강사님 교재, 정선균 강사님 교재, 김기홍 강사님 교재, 류준세 강사님 교재, 홍정선 교수님 교과서, 정하중 교수님 교과서, 박균성 교수님 교과서, 김향기 교수님 사례집, 홍정선 교수님 사례집, 박정훈 교수님 사례집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행정법 서브 노트는 실제 답안 형식과 분량으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들여 만든 서브노트는 시험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이 다가옴에 따라 서브노트를 반복적으로 보며 내용을 최대한 암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

한 서브노트 중 암기해야 할 판례 문구만을 따로 정리해 판례문구 서브노트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틈틈이 이를 보며 판례 문구를 암기하였습니다.

행정법 스터디는 답안스터디와 사례집스터디를 주로 하였습니다. 답안 스터디를 통해 답안 구성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고, 다른 사람 답안 구성 중 본받을만한 점을 벤치마킹 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집 스터디를 통해 논점 잡는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 사례집의 해설을 보며 스스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3) 행정학

행정학 또한 꽤나 자신이 있던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행정법만큼 높은 자신감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평균 이상의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 문제로 나와서 참 많이 애를 먹기도 하였습니다.

행정학은 학문의 큰 틀을 그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할애하였습니다. 이론을 바탕으로 행정사례를 분석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였는데, 이는 강사님들의 수업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지는 이야기이므로,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의는 박경효 교수님 강의를 주로 수강하였습니다. 다만 송운현 교수님의 3순환 강의와 사례특강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행정이론적 측면은 박경효 교수님의 강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송운현 교수님의 강의에서는 박경효 교수님과 다른 행정이론적 시각을 엿볼 수 있으며, 보다 풍부한 사례를 제공해주시므로, 연차가 쌓이신 분들은 송운현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송운현 교수님의 강의를 주로 들으신 분이려면 거꾸로 박경효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행정학도 행정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교재와 문제,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법과는 달리 답안 분량과 형식으로 서브노트를 제작하지는 않았고,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집대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행정학의 경우 답안 형식으로 내용을 만든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파트별 또는 유명한 주제별로 정형화된 서론과 결론을 만들어 이를 암기하였습니다. 행정학은 과목의 특성상 업데이트가 계속되기 때문에 서브노트에 새로운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강의에 나오지 않은 나만의 사례들을 만들기 위해 각 부처의 보도자료나 뉴스를 열심히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 생각하니 지엽적인 사례는 차라리 활용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행정학 스터디는 오직 답안스터디만을 하였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의 답안지를 보고, 저의 답안 표현이나 형식을 수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로부터 좋은 표현을 벤치마킹하고, 신선한 사례들을 접했으며, 제 미진한 행정학적 논리들을 수정하였습니다.

4) 교육학 및 교육심리학

제가 처음 교육행정직렬을 준비하던 때에는, 수험생 중 대부분이 사범대 또는 교원대 출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학 관련 수업을 들은 것이 비고우위가 되지 못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현재 교육행정 직렬 선발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 비사범대 출신 수험생들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교육학을 많이 접해본 사범대 출신 수험생들도 교육학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직 교육행정 직렬만이 치르는 과목이라 빅3과목에 비해 교재나 강의가 열악합니다. 저 또한 준비하는 데 가장 곤란을 겪었던 과목입니다.

강의는 주로 임용고사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 임용고사 쪽의 강의 질이 월등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고시 판의 강의는 수강하지 않았으며, 임용고사 쪽 강의 중 전태련 강사님, 김현 강사님, 신태식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EPR 무료 강의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임용고사는 교사 또는 교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행정고시는 행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임고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지 말고, 그 중에서 자신이 적당히 취사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임용고사에서 그간 나오지 않았던 행정관련 문제가 교육학에서 출제된 만큼, 올해부터 임용고사 강의에서 행정적 측면이 비중이 높아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교재는 합격자 서브노트와 EPR을 주로 보았습니다. 전태련 강사님 교재, 김현 강사님 교재, 신태식 강사님 교재 등도 참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과목별로 1~2권의 교수님 교과서를 추가로 공부하였습니다. 성태제 교수님 교육학개론, 김재춘 교수님 교육과정및평가, 신명희 교수님 교육심리학, 성태제 교수님 교육평가, 김대현 교수님 교육과정, 이성호 교수님 교육과정및평가, 김규태 교수님 교육학논리와논술, 이병승 교수님 쉽게풀어쓴 교육학, 김천기 교수님 교육사회학, 윤정일 교수님 교육행정, 백영균 교수님 교육공학, 박성익 교수님 교육방법 등을 보았습니다. 다만 모든 교과서를 꼼꼼히 본 것은 아니고, 발췌독을 많이 하였습니다. 교육사 및 교육철학은 별도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각 과목별로 교과서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서 자신에게 맞는 교수님 교과서를 찾아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공학이나 교육행정, 교육과정 과목 등은 시의성이 중

요하므로 가급적 최근에 개정된 교과서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학 역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행정법 및 행정학과는 달리 끝끝내 서브노트를 완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교육학의 양이 워낙 방대하고, 정책 자료를 찾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0%정도 완성된 서브노트는 시험 직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찾아본 여러 자료들도 유용했습니다. 특히 대학 도서관의 교육 관련 잡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자료집이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스터디는 대부분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신뢰가 아닌 학교 고시반에 있다보니 소수직렬이라 스터디를 할 만큼의 인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신뢰가 참 부러웠습니다. 임용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과의 스터디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한 방식은 정해진 파트를 공부해와서 해당 파트 내 쟁점들을 구두로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비교적 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인지, 이와 같은 방식의 스터디도 꽤나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제3차시험 공부방법(면접시험)

(1) 전반적인 준비방향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3차 시험을 안전지향적으로 접근합니다. 2차 성적대로만 가자는 것이지요. 다만 저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2차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우수를 받는 마음으로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직렬은 3차 면접을 보는 모든 수험생이 한 곳에 모여 스터디를 진행하곤 합니다. 그 스터디에 작년 합격자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기도 하십니다. 저 또한 교육행정 직렬 스터디를 주된 스터디로 하되, 다만 학교 고시반에서 진행되는 면접 스터디 프로그램도 종종 참여하였습니다. 두 면접 스터디 모두 체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집단토론

많은 수험생들은 집단토론을 그저 안전하게 넘어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 명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라 스스로의 힘으로 컨트롤하기도 어렵거니와, 자칫 심사위원님들께 무례하고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위험을 감수한 우수전략을 택하였지만, 집단토론에서는 부드러운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토론매너에 가장 많은 신경을 기울였고, 너무 많은

발언과 너무 긴 발언을 자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육행정직렬의 특성상 어차피 실전에서 합을 맞추는 사람들은 교육행정 직렬 수험생들이었기 때문에, 면접 스테디 중 모든 사람들과 1회 이상 토론 기회를 가지며 최대한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실전에서 운이 좋게도 많은 연습을 해본 사람들과 같은 조가 되어 한결 편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3) 개인발표

개인발표는 개별발표용지를 활용한 발표입니다. 따라서 수려한 말씨보다 일목요연한 개별발표용지가 더 눈에 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정책을 제시함에 있어 눈에 확 띄는 정책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용지 내에는 언제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가 주제로 제시되었을 때에는 ‘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SEE 프로젝트’ 등의 이름을 제시하였는데, 이때 SEE는 각각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 주요 키워드의 두문자였습니다. 또한 S, E, E 각각을 큰 원으로 표현하고 원 안에 세부 내용을 기입하는 등 용지를 본 심사위원의 기억에 남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개인발표시간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수험생 간 상호 질문시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질문 시간에서는, 최대한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되, 발표자의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것을 재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논리성은 이미 질문을 통해 보여준 것이고, 재반박 시 자칫 공격적인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 인성면접

인성면접 때는 최대한 저의 진심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칫 가식적으로 보이거나 진심이 전달되지 못 할 수 있었기에, 이를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을 많이 연습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정고시를 준비한 까닭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이러한 진심이 전달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업무 중 딜레마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조화로운 답변을 만드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개인과 집단이 반목할 때, 양자 중 하나만 택하기 보다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답변을 생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평소 준비 때 딜레마적 질문을 많이 접하고 그 내용을 정리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IV. 마치면서

사실 이 합격수기는 저의 첫 합격수기가 아닙니다. 이곳 저곳에 쓰다보니 어느덧 세 번째로 합격수기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같은 사람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글임에도 불구하고, 글이 동일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마 글을 쓸 때마다 전달해드리고 싶은 논점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시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문제를 풀어도, 점수가 동일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답안이 조금씩 다른 까닭이죠. 이를 두고 수험생에게 공부가 덜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합격생도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 분명 행운이라는 바람을 탔기 때문에, 합격이라는 깃발을 휘날릴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꿈이 확고하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곳곳이 걷고 걸어, 결국 때가 되어 그 꿈에 성큼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공직에서 뵙겠습니다.